

11월 5일

레위기 3 장: 이번 장은 화목제를 다룹니다. 화목제는 떼나 우리 가운데서 취한 흠 없는 동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교제함을 상징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라!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평화를 갈망합니다. 깊은 산 속 고요한 호수에서 유유자적한 백조를 부러워하고, 상처받은 영혼은 치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평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시며, 깨어진 관계와 영혼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화목제는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러졌고, 때로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헌신의 표시로 드러졌습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의 제사는, 예배자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에서는 예배자가 드린 소, 양, 염소 등을 제사장이나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어졌고,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졌습니다. 제물을 함께 나누는 행위는 화평과 우정, 친교를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가 식사를 함께 함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화목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죄는 분리를 가져옵니다. 죄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과 불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롬 3:25-26). 그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사람들은 교만과 편견, 이기심, 집단주의로 장벽을 쌓으며 자기 왕국을 세우지만, 그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평의 길을 열어 놓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이웃 사이를 가르는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엡 2:14). 화목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죄는 반목과 불안, 분열을 가져오지만, 그리스도는 화목과 감사, 일치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화평케 하는 복을 받습니다(마 5:9).

묵상 질문: 여러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이나 이웃과 멀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이루십니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1. 화목제물로 어떤 동물이 사용되었습니까? (1, 6, 7, 12)
2. (참, 거짓)-수컷 동물만이 화목제물로 적절하였다.
3. (참, 거짓)-악간의 흠이 있는 동물도 화목제물로는 허용이 되었다.
4. (참, 거짓)-희생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우는 것은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포함되었다.
5. 이스라엘 백성은 왜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까? (15-17)
6. **화목제의 완성, 그리스도 안의 영원한 화평:** 화목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화평(shalom)을 누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교제를 확고히 하는 귀한 수단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는 곧 하나님과 인간이 한 식탁에서 평화롭게 교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는 완벽하지 않았고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화평의 위대한 결과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1-3)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된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은 잠시 얻었다가 사라지는 감정적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확고한 관계적 평화(shalom)입니다. 우리는 이 화평 안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화목제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과 교제는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환난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화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견고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리며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염려나 환난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로막게 두지 마십시오. 이미 얻은 이 화평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환난마저도 영광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뻐하십시오.
7.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태우는 이유(5절):**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장소였으며, 그 위에 이미 번제의 불이 타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기름을 이 불 위에 태우라는 지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속죄와 헌신이 우선이다 (번제의 역할). 번제는 5대 제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로, 제물 전체를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과 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화목제)은 죄의 문제(속죄)가 먼저 해결되고 전적인 헌신(번제)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화목제물이 번제 위에 놓임으로써, 제사 드리는 자는 자신의 평안과 감사(화목제의 목적)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죄 사함과 헌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둘째, 화목제 기름의 거룩함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며 제물 중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번제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가장 신성한 기름을 이미 타고 있는 거룩한 불 위에 둬므로써, 화목제의 기름 역시 하나님께 바쳐지는 가장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구별됨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화제의 대표적인 형태였습니다. 화목제 기름을 번제물 위에 놓아 태울 때, 두 제물이 합쳐져 타오르면서 더욱 풍성하고 완전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요약하자면,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태운 것은 완전한 헌신과 속죄(번제)가 선행되어야만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화목제)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구약 제사 제도의 핵심 교훈을 보여주는 규정이었습니다.
8. **왜 기름을 먹지 말고 태우라 했나요?:** 구약 시대, 특히 제사(희생제)에서 짐승의 기름(지방)을 먹지 못하고 반드시 불살라야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물에서 '기름'은 고대인들에게 가장 맛있는 부분이자, 생명력과 풍요를 상징하는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와 것이니라"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좋은 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인 기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에서 벗어나, 율적인 감정을 달래는 위로의 시간 정도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때, 그 예배자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